

# “매트리스 반영구 시대... ESG와 직결, 100년 이롭게할 것”

## 뷰티레스트 런칭 100주년 간담회

안정호 시몬스 대표  
“신제품에 ‘바나뎀 포켓스프링’ 적용  
탄성·내구성 뛰어나 극한상황 견디  
사용주기 늘려 폐기물 줄이는 효과”

잘 늘어나고 잘 퍼지면서도 단단하고  
부러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금속, 강철  
보다 강하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바나뎀은 강  
철·합금 강도와 온도 안정성을 증가시  
켜 탄성과 내구성이 뛰어나고 고온·고  
압 등 극한의 상황을 견디 제트엔진 등  
항공 엔지니어링 기술에 특수 소재로  
쓰인다.

침대전문회사로 지난해 업계 1위를  
한 시몬스가 앞으로 생산하는 모든 매  
트리스에 바나뎀 소재를 활용한 포켓스  
프링을 적용,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7월1일 이후 고객들  
이 구입한 모든 시몬스 매트리스에는  
바나뎀 포켓스프링을 사용했다.

‘바나뎀 포켓스프링’은 기존의 경강  
선 포켓스프링보다 5배 정도 강하다는



안정호 시몬스 대표가 3일 경기 이천 시몬스 팩토리룸에서 신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시몬스

게 시몬스측 설명이다.

바나뎀 소재를 통해 내구성 뿐만 아  
니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까지 ‘두 마  
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다.

안정호 대표는 시몬스 침대의 심장부  
인 경기 이천 시몬스 팩토리룸에서 3일  
‘뷰티레스트(Beautyrest) 런칭 100주  
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바나뎀 포  
켓스프링을 적용한 대표 브랜드 뷰티레  
스트 신제품을 소개했다.

뷰티레스트는 내년이면 출시한지 꼭  
100년이 된다.

안 대표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25년, 시몬스는 ‘뷰티레스트 컬  
렉션’을 출시하고 세계 최초로 포켓스  
프링 제조기계 특허를 취득했다”며 “포  
켓스프링 대량 생산으로 침대의 보급화  
를 실현해 인류의 잠자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나뎀 포켓스프링은 하  
루종일 20만 번 이상의 스프링 내구성  
테스트를 1000만 번 이상 진행해도 끊  
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존 제품보다 내  
구성이 월등히 향상돼 사실상 스프링의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며 “시몬  
스는 100% 자체 생산을 통해 바나뎀 포  
켓스프링의 대중화를 선도하며 반영구  
적 사용이 가능한 매트리스 시대를 이  
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가 설명하는 동안 한쪽에선  
바나뎀 소재를 적용한 스프링의 내구성  
실험이 끊임없이 반복됐다.

포켓스프링은 시몬스의 상징이다.

침대 역사에서 포켓스프링의 대중화  
를 선도한 것이 바로 시몬스이기 때문  
이다.

안 대표는 “시몬스의 포켓스프링은  
상단부와 하단부 직경이 좁고, 중간 부  
분이 넓은 항아리 모양으로, 스프링이  
마찰하는 면적이 없어 불필요한 소음을  
없애고 내구성 또한 강하다”며 “여기에  
압축률은 30%에 달하고, 이탈리아 이  
탈펠트로사의 고밀도·고인장력 특수부  
직포로 포켓스프링을 감싸 스프링의 손  
상을 막아준다”고 전했다.

게다가 스프링은 최적의 탄력 효율을  
구현하기 위해 7회전으로 이뤄져있고,  
포켓커버와 간섭현상을 막기 위해 안쪽  
으로 접히도록 끝을 마무리했다.

바나뎀 포켓스프링을 활용한 반영구

적인 매트리스는 ESG와도 직결된다.

안 대표는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드  
는 것은 당연하다. 소비자들도 제품을  
오래 쓰면 좋은 것 아니냐. 오래 쓰면 폐  
기물을 줄이는 등 여러가지로 좋다는  
판단에 바나뎀을 제품에 적용하게 됐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내  
일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행동”이라  
는 말이 있다”며 “100여 년 전 시몬스의  
품질 혁신으로 전 세계인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선사했듯, 이제는 바나뎀 포  
켓스프링이라는 ‘세상에 없던 기술’로  
또 다른 100년을 이롭게 하겠다”고 당찬  
포부도 밝혔다.

한편 안 대표는 제품 가격 인상에 대  
해 “코로나 팬데믹 2년간 가격을 동결했  
다. 이후 원부자재와 인건비, 물류비가  
모두 올랐다. 올해 초 제품 가격을 인상  
할 수밖에 없었다. (바나뎀 포켓스프링  
을 적용한) 신제품은 3년을 준비했다.  
내장재와 소재도 완전히 새롭게 바꿨  
다.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인상  
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쿠광, 3조 투입... 인구감소 지방도시에 1만명 직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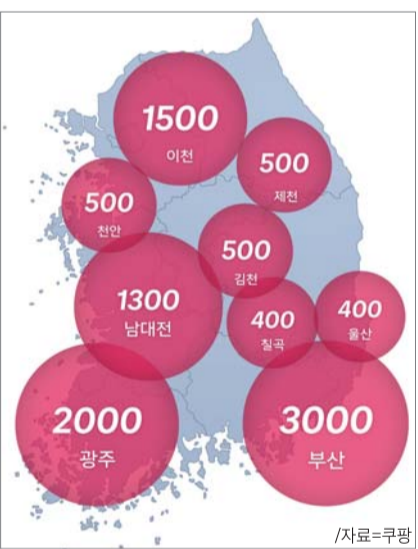
내후년 까지 물류인프라에 3조  
내년 9개 지역에 물류시설 건립  
직고용 96% 비서울 지역서 근무

쿠광이 20대 청년을 포함해 인구가 줄  
어드는 지방에 물류 인프라 투자를 대거  
늘린다. 추가 물류 인프라 투자를 바탕  
으로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는 지역을  
포함, 전국 각지에서 20대 청년 등 최대  
1만여명을 신규 직고용할 방침이다.

쿠광은 2026년까지 전국 물류 인프  
라에 3조원 이상을 투자키로 한 계획에  
따라 내년 초까지 9개 지역에 풀필먼트  
센터(FC)를 비롯한 물류시설을 건립,  
운영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예상 직고용 인원만 1만명이 넘는  
다. 쿠광은 지난 3월 2026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입해 물류 인프라와 설비에  
투자하고, 5000만인구를 대상으로 로

(지역별 예상 직고용 인원) (단위: 명)



/자료=쿠광

켓배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가 물류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지역 곳곳에 대규모 고용인원이 창출  
될 전망이다.

먼저 다음달까지 대전 동구 남대전  
지역과 광주광역시 FC 2곳을 준공해  
운영에 들어간다. 신규 준공 FC 2곳의  
예상 직고용 인력은 3300여명 이상  
이다. 지난달 본격 가동한 충남 천안 FC  
는 500명 채용 예정이다.

각각 500명, 400명 채용 목표인 경북  
김천 FC와 울산 서브허브(배송캠프로  
상품을 보내는 물류시설)는 오는 10월  
착공한다. 경북 철곡(400명) 서브허브  
는 연내 운영을 시작하고, 충북 제천  
(500명) FC는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

부산 강서구 FC(3000명)와 경기 이  
천 FC(1500명)는 올 2분기 착공했으며  
순조롭게 건설중인 상태.

쿠광의 물류 투자 계획이 실현되면  
비서울 지역의 배송·물류 관련 직고용  
인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쿠광의 물류·배송 관련

직고용 인력의 96%(약 5만5600명)가  
비서울 지역에서 일한다.

물류 인프라 투자로 창출되는 물류·  
배송 관련 직고용 인력은 쿠광이 지역  
에서 만드는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  
한다. 앞으로 신규 물류 인프라 투자로 인  
한 지역 직고용 인력이 1만여명 늘어날  
경우, 비서울 지역 고용인원은 6만5000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개 추가 투자지역 가운데 대전  
동구·광주 광산구, 경북 김천 어모면·  
철곡군과 울산 울주군·충북 제천은 저  
출산 여파 등으로 최근 인구가 줄거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쿠광의 지역 물류망 투자로 서울이  
나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다시 지방  
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며 여성 고  
용도 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 쥘두산 ‘KPCA Show 2024’ 참가 스마트 디바이스 등 전시

쥘두산이 스마트 디바이스, 반도체  
기판, 통신 등의 주력 제품과 전자기기  
의 핵심 소재 기술력을 선보인다.

쥘두산은 9월 4~6일 인천시 송도컨  
벤시아에서 열리는 ‘KPCA Show  
2024(국제PCB 및 반도체패키징산업  
전)’에 참가해 반도체 패키지, 인공지능(AI) 서버, AI 가속기, 자동차 자율  
주행용 모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하이  
엔드(High-end) 동박적층판(CCL)을  
소개한다고 3일 밝혔다.

‘KPCA Show’는 한국PCB&반도  
체패키징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  
대의 전자회로기판(PCB) 및 반도체패  
키징 관련 전문 전시회다. PCB와 반도  
체패키징 산업의 종사자들에게 선진기  
술을 소개하고 기술 이전의 기회, 다양  
한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술 선진  
화를 앞당기고 국산 장비의 고급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쥘두산  
을 비롯해 삼성전기, LG이노텍, 심텍,  
대덕전자 등 140여개사가 참가한다.

쥘두산은 스마트 디바이스(스마트  
폰, 스마트워치, 자동차 자율주행 모듈  
등) 반도체 기판(메모리, 비메모리) 통  
신(네트워크 보드, AI 서버, AI 가속기  
등) 등 3가지 테마로 이번 전시회를 준  
비했다.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와 관련  
해 CCL 외에도 레진코팅동박(RCC),  
연성동박적층판(FCCL) 등 다양한 종  
류의 제품군을 선보인다. CCL은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PCB의 원  
재료가 되는 핵심소재다.

쥘두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모든 주력 제품을  
소개하기로 했다”면서 “신소재 개발과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대동, AI전문가 영입... 통합 R&D센터 오픈 “온누리상품권, 학원·노래방서도 쓰세요”

대동에이아이랩 대표에 최준기 박사

대동이 인공지능(AI)과 로봇 사업  
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전문가를  
영입하고 통합 R&D센터를 열었다.

대동은 KT AI사업본부장 출신인 최  
준기 박사(사진)를 AI 로봇 S/W전문  
회사 대동에이아이랩 대표로 선임하고  
관련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한다고 3일  
밝혔다. 신임 최준기 대표는 카이스트  
(KAIST) 전산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  
전자통신연구원(ETRI)를 거쳐 KT에  
서 18년간 AI 분야 요직을 맡았다.

KT AI/BigData사업본부에서 AI



스피커 ‘기가지니’ 서  
비스를 기획·운영해  
300만 가입자를 확보  
했다. 이어 AI사업본  
부장을 맡아 생성형  
AI ‘민음’ 사업과 KT  
미디어터 사업 등을 총괄했다. 또 A  
ICC(인공지능센터) 사업을 담당하  
며 B2B 영역에서 연 평균 두 자리수 이  
상의 매출 성장을 이끌어왔다.

최 대표는 “대동그룹의 스마트 농  
업 경쟁력에 AI와 로봇을 더해 글로  
벌 리더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승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가맹 제한업종 40종→28종 줄여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  
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늘어난다.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에서도 온  
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다.

9월 한 달간 카드형 등 디지털 온  
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올려 더욱 저렴하  
게 판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상점  
가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  
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

용이 담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  
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  
한업종은 기존 40종에서 12종이 풀려  
28종으로 줄어들게 됐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  
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  
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  
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  
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을 사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